

1골 1도움, 펄펄 난 손흥민... 역시 '토트넘 해결사'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파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1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 후반 9분 팀의 세 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은 1골(리그 14호) 1도움(6호)을 기록하며 팀의 5-1 승리에 이바지했고 토트넘은 4위로 올라섰다. 뉴스스

데이비스 동점골 도움이어 리그 14호골 폭발 챔스리그 진출 경쟁 아스날에 2골차 4위 올라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소속팀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 핫스파의 '왕'이었다. 손흥민이 A매치가 끝나자마자 치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토트넘의 4위 도약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핫스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21~22 EPL 홈경기에서 동점골을 어시스트한데 이어 팀의 세 번째 골까지 넣으며 5-1 대승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리그에서 3연승을 달리며 17승 3무 10패(승점 54)를 기록, 아스날(17승 3무 8패, 승점 54)에 골득실에서 앞서며 4위

로 뛰어올랐다. 토트넘은 아스날보다 2경기 더 치렀기 때문에 4위 자리가 불안하긴 하지만 이날 4골차 승리를 거두면서 골득실에서 15-13으로 2골 앞섰다.

토트넘과 아스날이 나란히 승점 54를 기록하는 가운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15승 6무 10패, 승점 51)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14승 9무 7패, 승점 51)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황희찬의 소속팀 울버햄튼 원더러스(15승 4무 12패, 승점 49)는 4위권과 승점차가 적지 않아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경쟁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뉴캐슬에 먼저 실점했지만 이후 5골을 터뜨리며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전반 39분 파비아양 셰어에게 프리킥을 선제골로 허용했지만 불과 4분 뒤 손흥민의 칼날 같은 정확한 크로스를 벤 데이비스가 헤더로 받아넣으며 균형을 맞췄다. 손흥민은 동점골 어시스트로 리그 6번째 도움을 기록했다.

전반을 1-1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부터 손흥민, 해리 케인, 데얀 콜루세프스키가 돌아가며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뉴캐슬 수비진을 초토화시켰다.

후반 3분만에 케인이 오른쪽에서 내준 패스를 뺏 도허티의 다이빙 헤더로 2-1 역전에 성공한 토트넘은 후반 9분 콜루세프스키의 어시스트를 받은 손흥민이 침착한 왼발 슈팅으로 뉴캐슬의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은 리그 14호 골로 디오고 조타리

버풀)와 함께 EPL 득점 공동 2위로 올라섰다.

토트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후반 18분 에메르송 로알의 득점포로 4-1까지 달아났고 후반 37분에는 교체 멤버까지 득점 대열에 가세했다. 콜루세프스키를 대신해 출전한 루카스 모우라의 도움으로 에메르송 로알과 교체돼 출전한 스티븐 베르흐바인이 팀의 다섯 번째 골을 만들었다.

토트넘은 지난 2월 리즈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둔 이후 6경기 연속 2골 이상을 넣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과시했다.

토트넘은 6경기 동안 맨유에 2-3으로 진 것을 제외하고 3연승을 포함해 5승을 챙겼다. 토트넘이 올 시즌 리그 30경기 동안 기록한 52골 가운데 6경기 동안 무려 20골이나 넣었다. 스키아에탈리/뉴스스

BTS, 2년 연속 그래미상 불발... 그림에도 빛났다

'그래미 어워즈' 버터 단독 무대 해당 부문 도자켓·시저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서 또 수상이 불발됐다.

방탄소년단은 3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글로벌 히트곡 '버터(Butter)'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에 올랐으나 수상은 하지 못했다.

올해 해당 부문의 트로피는 도자켓 & 시저의 '키스 미 모어(KISS ME MORE)'에 돌아갔다. 이 곡은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곡이다. 방탄소년단 '버터, 레이디 가가&토니 베넷 '아이 갓 어 키 아웃 오브 유', 폴드 플레이의 '하이어 파워, 저스틴 비버베니 블란코 '롤리' 등 강력한 경쟁자들을 따돌린 이었다.

미국 대중문화지 별치는 앞서 이번 그래미 예측 기사에서 2020년 '세이 소로 디스코'의 부활을 알린 도자켓이 작년 그래미에서 상을 받지 못했다는, 잘 만들어진 히



방탄소년단은 3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어워즈 퍼포먼스 나사 글로벌 히트곡 '버터' 무대를 선보였다. 뉴스스

트곡 '키스 미 모어'로 받아야 한다는 점별도로 강조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그래미 어워즈에서 고배를 마셨다. 작년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로 한국 대중음악 가수 최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이 불발됐다.

하지만 무엇보다 방탄소년단의 이번 그

래미 수상 여부와 별개로 이 팀이 계속 새 역사를 써가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그래미 어워즈에서도 '버터' 무대로 호평을 들었다.

돌싱·9살 차이 극복 김준호·김지민 열애

개그맨 김준호(47)와 개그우먼 김지민(38)이 열애 중이다.

김준호·김지민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3일 "KBS 공채 개그맨 선후배 사이이자, 같은 소속사 식구인 김준호, 김지민 씨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JDB는 "김준호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김지민 씨의 위로가 큰 힘이 됐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로 관계를 이어오다 얼마전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준호, 김지민 두 사람은 공인으로서 더욱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귀감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앞으로 좋은 만남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SBS TV '신발 벗고 돌싱 포맨' '미운 우리 새끼' 등에 출연 중인 김준호는 '돌싱'(돌아온 싱글)이다. 지난 2006년 2세 연상 연극배우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다. 김지민은 미혼이다. 비교적 많은 9세 나이 차를 극복하고 연애 중인 사실에 누리꾼들은 놀라다는 반응이다.

이미 예능 프로그램에선 올해 초부터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감지됐다. '미




MBN '친한예능' 개그맨 김준호가 7일 오전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서울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시청률 공약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스

운 우리새끼'에서는 김준호 집에서 김지민이 준 향초가 발견된 것이다. 향초에는 '맹탕야 평생을 함께 하자. 나의 반쪽'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김준호는 "김지민이 수제 향초를 팔 때 구입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준호와 김지민은 KBS 공채 선후배 사이로 오래 전부터 친분을 다져왔다. 김준호는 14기 공채 출신으로 KBS 2TV '개그콘서트'전성기 시절을 함께했다.

김지민은 21기 공채 개그우먼 출신으로 '미녀 개그우먼'으로 인기를 누렸다.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쏘팔메토

10년 연속
판매 1위

No. 1



1회 분량 당 함량: 열량 0 kcal, 탄수화물 0g(0%), 단백질 0g(0%), 지방 0g(0%), 나트륨 0mg(0%), 콜로산(lauric acid) 89.6mg, 비타민B1 1.2mg(100%), 비타민B2 1.4mg(100%), 비타민B6 1.5mg(100%), 비타민B12 2.4µg(100%), 아연 4.95mg(58%), 셀레늄 30µg(55%)

※ (아연의 수치는 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 1X(1+1)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특별 이벤트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맨케어파워 옥타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77-6655

※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기준